

문대통령 “온기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 위해 총력을”

“추경편성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 활력되찾고, 서민 소비 되살아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업종과 기업 간, 백화점·대형마트와 골목 소비, 그리고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광수/기자



[기고] 다문화 학생의 꿈

Hello my name is Hyuna Ahn, and I'm second grade in Jeongeong Middle School in Yongin. I want to introduce myself to you. My dream is to become a Chinese teacher in middle school. My father is Korean, and my mother is Chinese. So my family is a multi-culture family. I want to tell you the advantage of a multi-culture family. First the advantages are that I could learn my Chinese mother tongue from my mother. I have learned Korea, and Chinese since I was young. This gives me a sense of language. So I can speak Chinese, Korean, English and Spanish. Second, I can also learn other country's culture earlier on. So No matter what I do in Chinese, I can't be afraid of Chinese culture that I already know. Luckily, I have participated in the career program at YongIn Multicultural Center. Through participation, I am finding my dream through various language, which is my advantage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중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요. 다문화 가족이 갖는 장점에 대해 말해볼게요. 우선, 어릴 적 부터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언어적 감각이 생겨서 저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요. 둘째로는 다른 나라 문화를 일찍부터 배울 수가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무순임을 하든 중국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Through the program, I learned how to improve my career path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I was able to find my problem-solving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in the program. Through reading, I was able to develop my vision of the world and develop creative thinking. I was able to find my future dream and talent through my career teacher in multicultural center.. I will major in Chinese and I am going to try to be a simultaneous interpreter or diplomat in order to find my dream.

움이 좋았어요. 저는 용인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가를 통해서, 내게 강점인 다양한 언어를 토대로 꿈을 찾아가고 있어요. 4차 산업 시대 맞는 진로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관점과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데, 다문화 센터 진로선생님께서 미래의 꿈과 끼를 찾아주시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의 꿈을 찾기위해 동시통역가나 외교관이 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다함께 잘살길 원해요. 우리 함께 협력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봐요. 우리의 꿈을 꼭 실현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꿈을 찾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용인정평중학교 2학년 안현아



‘6월 민주항쟁 불꽃’ 이한열 열사 생애기록 38건 복원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인 고교생 시절의 기록과 압수·수색 영장, 부검결과 등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기록들이 복원되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8일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을 복원, 특히 이 열사의 일기 'My Life', 고교생특별수련기, 어머니의 글 등은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열사는 1987년 당시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 중 이 열사가 17세 고교시절에 남긴 일기 'My Life'에는 학생으로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진지함과 깊은 생각, 다짐,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17세의 이 나이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오늘은 한해를 보내는 기분이 다른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든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신적 바램이 컸던 해라고 본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은 점점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통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또한 신문에 실린 새마을 수련회 참가기와 당시 부모님께 쓴 편지에는 수련을 통한 깨달음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 열사의 성숙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번 기록에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을 알 수 있는 기록도 있는데, '1987년 6월 9일 5시 5분경'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글에서는 학교로부터 위독한 상황을 전달받은 순간부터 중환자실에서 인종을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사건과 감

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떨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문으로 들어갔다. 우리 한열이가 왜 그래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고 코, 입, 산소 호흡기를 온몸에 착용해서 이름도 모르는 기계에 의해 호흡하고 있었으니...27일 동안을 말 한마디 못해 보고...한열이는 7월 5일 2시 5분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올려 6월 항쟁과 관련해 사망 이후의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부검결과 이물질 규명 중간보고'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에서는 이 열사의 머릿속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분석내용과 직접적인 사인이 '최루탄 피격'임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6월 항쟁의 현장이 담겨 있는 사진도 대거 복원되었고, '민주국민장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 테이프에는 '1987년 7월 9일 거행된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에서 고문익한 목사의 추도사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의 오열하는 음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복원된 기록들은 지난 해 5월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국가기록원에 복원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월 중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진단해서 클리닝과 오염제거, 결실부 보강, 중성화 처리를 통

해 원형 그대로 복원했고, 인화 사진은 이물질·열록·스크래치를 제거해 고해상도 디지털파일로 복원했으며 아날로그 테이프도 디지털화했다.

이경주 이한열기념사업회 관장은 “이 열사의 기록은 1980년대 사회운동에 나섰던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는지 보여준다”며 “후대의 사람들은 이 기록을 통해 그 시대와 생생하게 만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한열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이한열과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기록을 세심하게 보관한다고 했으나 사립박물관이 갖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기록원에서 복원 지원 사업으로 귀중한 자료를 복원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과정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은 “이 열사의 생애기록과 6월 항쟁 기록은 80년대 시대상과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현대사 기록이며 필사본이자 유일본으로 그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9일 기록의 날에 맞춰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의 의미를 되살려 기록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민식/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이낙연 한중관계 '구동존이' 아닌 '취화동이' 관계 바라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8일자에 前 총리 명의로 기고...G7 회의 목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8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신흥(新興)국제관계와 한반도 변영프로세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중국 관영신문에 기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신흥(新興)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직 총리이자 집권당의 전임 당 대표로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 및 한중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신흥국제관계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어로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라는 우

분투는 중국의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라며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소 냉전이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었다면 작금의 미중 관계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적 복합관계"라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에도 경쟁 못지않게 협력의 여지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미중 관계를 두고 "폭격 있는 신흥미중관계(新興美中關係)였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 "신형 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聚同化異) 관계였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이미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명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

국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중 양국은 더 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변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 관계는 복원됐다. 다만 민간 관계의 소통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 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뢰교와 한반도 신평화



구상,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동맹 강화 등 대외정책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며,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등 4개국 정상도 초대되었다. 최광수기자

주말과 겹쳐 공휴일 절벽, 올 하반기 공휴일 4일 늘리는 법안 추진!

올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8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임 법리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법제화해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행 설, 추석, 어린이날 외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작년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이며 이는 과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남궁영기자

경상북도 청송군의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청송군의의회는 6월 7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상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심상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심각한 해양 오염은 물론 지구 해양 환경과 인류 전체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

대한 국제범죄 행위이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송군의의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세기기자

김성일 전남도의원,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발 벗고 나서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국산 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김치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전문가로서 평소에도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농업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무·배추·마늘·양파·대파 등 노지채소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김영만기자

특히, '국산 김치 소비확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외식업중앙회간 업무협약 추진, 김치 소비확대 기자회견 및 거리홍보 캠페인, 김장김치 나눔행사 6년째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지역음식점 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 확대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왔다.

김성일 의원은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김치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며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모색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첫선' · · · 수강생 모집중

영등포구가 평생학습 기반의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3/4분기 YDP 미래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생을 6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YDP미래평생학습관'은 전(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구민에게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배움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이다.

학습관은 오는 6월 18일 개관 예정으로,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준비한 첫 프로그램 과정은 구민 누구나, 장소의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궁궐·세계유산 인문학, 컬러테라피를 통한 힐링 강좌 등 인문교양, ▲수채화, 식물세밀화 그리기, 도예 강좌 등 문화예술, ▲정리수납, 그림책감성코칭 지도사 등 직업능력, ▲뉴노멀 시대

의 변화 및 우리의 미래 강좌 등 시민참여 총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의는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실내 소독과 주기적 환기, 수강생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도서 함께읽기, ▲운동습관 기르기, ▲그림책·영화·독서토론 등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SNS 플랫폼을 통하거나 줌(ZOOM)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다.

과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수강료는 강좌별 무료 또는 1만 원~3만 원 선이다.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이며, 감사에 현금납부하면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의 통합예약→평생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소식 카태고리를 참고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의 첫 시작을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

하고 알찬 내용의 강좌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배우고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50만원) 신청 받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에 이른 점포가 서울에만 3만여 곳에 달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서울 용산구가 7월 30일까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50만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7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시점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관할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여부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형별 5종(유형·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플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

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지역 내 지원대상은 약 700명(개소),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총당한다.

성정현 용산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가게를 접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의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156억원 규모 특별신용보증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용자 지원 ▲간혹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양류 유예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1부서 1경제살리기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관악구-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선발

2021.06.01(화)~06.28(일)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

- 공고일(21.06.01)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모집

- 2021.06.01(화) ~ 06.28(일)
-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 모집 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구권 제출

문의

070-7791-4476
campustown@su.ac.kr

관악구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구와 서울대학교는 2019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돼,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창업밸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대학동·남성대동 지역을 양대 거점으로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구성점으로 서울대의 인력과 기

술력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육성 프로그램과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AI, 빅데이터, 로봇,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 또는 POST-코로나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분야의 창업기업은 우대·선발할 계획이다.

구와 서울대는 ▲창업아이템 ▲성

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 ▲기업 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20개 내외의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인 '창업 HERE-RO 2·3·4·5'에 오는 9월 중 입주예정이다.

입주기업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걱정 없이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 교수 및 연구진 기술 연계 ▲수요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데모데이 운영을 통한 투자 유치지원 및 상시 투자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공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악구-서울대 캠퍼스타운에는 AI, 바이오, 스마트헬스케어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31개 기업들이 입주해 유니콘기업을 꿈꾸고 있으며, 창업공간 및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투자, 매출, 고용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준희 구정장은 "관악구가 기술창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벤처밸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업인프라 구축, 창업지원펀드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경진대회'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 배포

금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6월 1일(화)부터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을 배포한다.

구는 지역 기업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지원', '감면세액 추정', '법인 중과세 제도' 등 기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했다.

지방세 안내 리플릿은 기업지원센터, G밸리 기업시민청, G밸리 패션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업 시설이나 이전 시 방문해야 하는 곳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가산동주민센터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 G밸리 기업지원센터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계해 지역 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 안내 시 지방세 리플릿을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에 전 입하거나 새롭게 창업한 기업들이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에 관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리플릿으로 제작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은평구, '서·삼·구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운영

서울 서북3구 연합(서대문, 마포, 은평)

서·삼·구 전통시장 스탬프투어

06.07.(월) ~ 06.27.(일)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민의 신체활동량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서울 서북3구 연합(은평·마포·서

대문)·서·삼·구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를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위크온' 어플 설치 후, 커뮤니티 모드에서 "은

평구 걷기동아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랜던지 모드에서 "서울 서북3구 연합(은평·마포·서대문)·서·삼·구 전통시장 스탬프투어" 참여하기를 누르고 참여기간 중 걷기코스에 따라 걸으면 된다.

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을 실천하면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 참여하기를 누르고 참여기간 중 걷기코스에 따라 걸으면 된다.

전통시장 스탬프코스 15개 지점과 시장정보는 챌린지모드 '투어코스보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은평구 5개 전통시장(중산종합시장, 대림시장, 신용암시장, 대조전통시장, 연서시장)에서는 걷기챌린지에 참여하는 주민이 일정 금액의 영수증 지참 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비대면 걷기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시장경제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송파구,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 돌입

(주)삼표산업측, 풍납공장 부지 무단점유 상태 철거 후 문화재 시굴조사 본격 시작

송파구는 (주)삼표산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풍납공장 일부 구역을 시작으로 철거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잔여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2020년 1월 10일 송파구로 이전되었다.

현재 해당부지는 (주)삼표산업이 무단점유 한 상태다. (주)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구에 신청했지만 이를 지난해 7월, 구가 불허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삼표산업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풍납공장 토지 중 일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하겠다는 부지는 풍납공장 전체 면적 21,076㎡ 중 약 17.8%인 3,769㎡이다.

그러나 구는 일부가 아닌 공장 토지 전부 인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주)삼표산업에 단호히 밝혔다. 이에



대해 (주)삼표산업은 지난 5월과 6월, 일부 인도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복원 등을 위해 공장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오는 6월 7일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일부 인도 구역에 시설물 철거를 시작한다.

철거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구청 등 관계자 참여하여 진행된다. 철거 작업은 6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철거를 시작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핵심인 해당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부 인도 구역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도 요청 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조속히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식은 고지서 요금 자동 차감·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시하는 에너지 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뉜다.

여름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사용량에 한해 고지서상 요금에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인 겨울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1개를 택해 자동 차감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지참.

구로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제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인천시 남동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교육으로 상생의 씨앗을 더

인천시 남동구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공동체 간 교류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동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남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60개 마을공동체가 세 가지 주제에 맞춰 우수 사례로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방문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7일 '마을 안 돌봄과 안전'을 주제로 열린 첫 교육은 구월1동 마을공동체 '인플러스(대표 김무용)'에서 매주 월요일 아빠들의 마을순찰과 동네 안 아이들의 놀이 활동, 장다리 어린이 공원의 탈바꿈 사례를 학습했다.

이어 24일에는 구월 4동 마을공동체 '마을공간 이너프'를 방문, '청년 마을활동과 공간운영'을 주제로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

과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의 마을활동 사례를 학습하고 같은 고민을 겪는 공동체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회차는 이달 8일 간석1동 주민자치회가 공동체 활동을 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 이웃과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한 노하우를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남동구 각 동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하는 이 교육은 주민자치회가 공동체 활동을 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 이웃과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한 노하우를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 사업은 남동구 마을활동가가 주축이 돼 우수마을을 함께 선정하고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만족도가 높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남동구 마을공동체가 한층 성장하고 공동체간 교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종로구, '경로당·복지관 확대 운영'... '백신 접종자 위한 프로그램 재개

종로구는 6월 7일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운영'에 나선다.

이번 확대 운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지침(7-1판)' 따른 것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경로당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 또한 정원 제한을 두었으며 여가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었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이용 정원은 30%에서 50%로 확대되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당분간 식사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구의 프로그램 재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일상 회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던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백신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이다.

1차 접종자 참여 가능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미술, 요가, 건강걷기, 통기타, 장기, 바둑 프로그램 등이 있다. 1·2차 접종자는 노래와 관악기, 당구, 탁구 등 각종 활동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이전에는 10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비대면 위주로 제한 운영해 온 노인복



지관도 7일(월)부터 1·2차 접종자를 위한 난타, 풍물, 미술 등 활동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채 우울감을 겪어왔을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백신 1·2차 접종자를 위한 프로그램 재개와 운영시간 확대 등의 조치로 조금이나마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인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이음길(路) 조성사업 펼쳐

신나고 안전한 등굣길, '안전 이음길(路)' 넘어 '소통 이음길'로 잇다



인천 서구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음길(路) 조성'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둘러보는 이번 현장 소통은 관내 가좌초등학교, 심곡초등학교, 해원초등학교에서 이뤄졌으며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교통정책과·주차관리과) 직원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가 함께 참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도시의 팽창과 발전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에 서구는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현장 소통을 펼치게 됐다.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

갔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동안 땀질식으로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재검토해 서구만의 어린이 보호구역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진입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보다 세밀히 파악해나가겠다"며 "이번 소통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깨달은 만큼 앞으로도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최우선, 안전이음길(路)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나간다. 이와 더불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중남/기자

성동구, 또 한 발 앞섰다... '성동구 도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이젠 전국 확산



서울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에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꼽힌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은 앞서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생활밀착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여기로'를 도입하여 운영한 데 이어, 올 초에는 또 다른 간편 배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빠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은 과거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구민이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휴대용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 구민 호응도가 높다.

이 때문에 10% 안팎에 머물던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사용률은 5월말 현재 35% 까지 치솟

았다.

특히 최근 도입한 '빠기'서비스의 경우, 간편하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혼자 바깥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생활폐기물을 집 바깥으로 옮겨주는 '내려드림'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지역 어르신 일자리와도 연계, 구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발굴,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 성동구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은 구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순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향후 어르신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처럼 성동구는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많은 편의를 드릴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발 빠르게 발굴·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대학 '별난 집수리교실' 수료식 열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5일 계양구 마을주택관리소에서 도시재생대학 '별난 집수리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계양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1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6주에 걸쳐 도배, 장판, 설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계양구는 집수리 능력을 강화하고 집수리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하여 도시재생사업지 내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집수리교육을 운영했다. 하반기에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 수료자는 "스스로 집을 고칠 수 있는 기능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교육생들과 함께 현장실습을 통해 주거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효성동 169-12번지 일원)은 '같이 채워가는 가치, 함께 빛이 나는 행복마을 효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공간 조성, 주거복지 실현,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지자체 사업비 등 약 29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인 공영주차장, 주민쉼터, 썬더공원 3개소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착공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마을사랑방과 가족놀이터 조성을 완료하여 원도심의 노후된 주거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광명시, 유흥주점 2개소 집합금지 위반... 영업자 및 이용자 22명 적발

광명시는 관내 유흥주점 2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 및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6월 13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업소 문을 잠그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다.

합동 단속반은 건물 관리실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광명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유흥주점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영업자와 이용자 등 22명을 수사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오는 6월 13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218개소와 홀덤펍 7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광명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



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유흥주점 6곳, 홀덤펍 5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자 11명, 이용자 101명 총 112명을 고발 조치했다.

전순희/기자

엄태준 이천시장, 경강선 GTX 국가 아젠다로 선택해야

엄태준 이천시장이 「광주-이천-여주-원주 GTX 사전타당성 용역중간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존「광주-이천-여주-원주GTX」를 「경강선GTX」로 명명했다.

또 「경강선GTX」는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2600만의 여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훈 교수(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는 엄태준 시장의 「경강선GTX」는 훌륭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엄태준 시장의 주장처럼 국가 아젠다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토론했을 했다.

유교수는 지금의 우리사회 문제를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GTX 1기라고 할 수 있는 GTX ABC노선 가지고는 수도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강선GTX」는 GTX2기로 새로운 각도에서 혁신적인 GTX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광주-이천-여주-원주 GTX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수요를 창출하는 상품이라며 GTX A와 C에 중속적인 개

념으로 접근하면 직선과 직결 그리고 고속을 특징으로 하는 GTX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이어갔다.

특히, 경강선GTX는 경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또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시곤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는 광주-이천-여주 GTX가 현실화되기 위한 대안으로 3가지 안을 발표했다.

3가지 대안 중 2가지 대안이 B/C가 1이상이 나왔으며 나머지 대안도 1에 가까운 0.92가 도출되어 제시된 3가지 대안에 대한 경제성은 모두 충족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교수는 이 중에 가장 급한 사안으로 수서역 직결문제 결정이 3~4개월 내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에 긴급제안을 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광주-이천-여주 지자체 장들과 토론회자들은 청중석에서 회의를 이어갈 정도로 이날 토론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밖에 광주시민의 제안으로 이천, 여주, 원주시의 경강선GTX 유지를 위한 시민단체연대도 제안이 되어 시민단체연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수/기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4일 운천로 일대...점심시간 단속유예 해제·즉시 단속 등 홍보



광주광역시는 4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도시철도 2호선 2공구(신상무주유소~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 4거리) 공사구간 중 상점과 노점상 등이 난립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운천로 일대에서 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서구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차로수가 줄어든 공사구간에서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출퇴근 길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지난 달 마련한 ‘도시철도 2호선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주정차 단속유예를 하던 것을 해제해 단속으로 전환하고, 주정차금지 구역에 15분 초과 주차 시 단속하던 것을 즉시 단속으로 전환한 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중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무중앙로, 서암대로, 필문대로 등에서도 불법주정차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 단축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부산시,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곳과 성능·상태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고차매매업체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

알선 수수료 및 이전 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위반 사항 135건을 적발해 과징금(11건), 개선명령(49건), 현지지정(7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경영/기자



옥천군,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경찰합동 특별점검 실시

pc방 6개소와 노래연습장 14개소 방역 실태 점검



옥천군은 지난 4일 경찰 합동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인근 지자체의 노래방 발 확진에 따라 n차 감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관내 pc방 6개소와 노래연습장 14개소에 대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경찰인력과 공무원 합동점검반(3개조 6명)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옥천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 사항인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또는 080 간편전화 체크인),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이용인원 게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주류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및 접객행위 금지 등 ‘음약산업진흥

시흥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 운영

스마트 건강지킴이로 건강한 나를 찾자!

시흥시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개교(신일, 은계, 장현, 군서초) 3,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성장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신체 및 비만도를 측정하고, 스마트 건강지킴이 앱을 통해 비만예방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아이의 성장 정보를 부모가 함께 공유한다. 특히, 아동이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예측 그래프를 제공해 학부모의 호응과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신체계측 측정 후에는 스트레칭, 균형 잡기, 맨손체조 등 평소 집에에서도 쉽게 실천가능한 운동프로그램 동영상도 제공한다. 또한,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이나 관절 등

몸 전체를 이용한 무용가의 ‘클레식 발레’ 운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각 학교의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내가 원하는 건강체중 만들기」 교실에서는 아동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동 스스로 건강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건소 영양사업과 연계한 ‘식생활배움터’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건강체중 만들기」는 주3회 월, 목, 금에 운영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1:1 영양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공식품과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나는 반면 신체활동은 점점 줄어드는 요즘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주한영국대사관과 업무협의회 개최

COP28 유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고양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지난 4일 고양시청에서 주한영국대사관과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영국의 정책적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주한 영국대사관 니메타 부대사는 "이제준 시장님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며 "1.5도 온도상승목표, 탄소중립 달성이야말로 바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길이다.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선구자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장 도시인 고양시가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P4G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국의 COP26은 그동안 추구했던 기후행동의 요구가 꽃 피우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며 생태계 본연기능을 극대화한 자연 해법 적용을 통해 새로운 기후 체제에 적합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고 밝혔다.



가겠다"며 "다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 고양시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은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이다. 총회 개최에 앞서 국가 차원의 기후행동(탈석탄동맹, Powering Past Coal Alliance)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레이스투제로(RtZ: Race to Zero)'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레이스투제로(RtZ)' 캠페인은 기업, 지방정부, 투자자, 대학 등 여러 주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약속한 뒤 매년 이행 경과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정책 캠페인이다.

주요 내용은 △204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약속 △COP26 개최 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단기·중기 계획 공표 △기후행동 실천 및 중간목표 달성 노력 △UN 플랫폼에 매년 이행 경과 제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레이스투제로(RtZ) 캠페인 가입을 주도하고 있는 주한영국대사관은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인 고양시는 레이스투제로 캠페인을 가입국으로 적합한 요소를 갖추었기에 캠페인 가입과 COP26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면적의 약 10%가 습지를 차지하는 영국과 유사하게 고양시도 습지가 발달했다"며 "앞으로 습지를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틱톡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한 반면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건(51%)만 삭제됐다. 특히 트위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46건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121건)'의 삭제 완료율이 48%(59건)로 전체 평균인 51%보다 낮았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혼,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도의 실태조사에서도 트위터는 146건 신고에 대해 별도 피드백이 없었다. 아울러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순능 경기도 여성가족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피해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신고 후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도 파견받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당신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031Cut

031Cut

성남시 1431곳 공공와이파이 속도 5~20배 빨라져

통신장비 교체...이용량 많은 곳은 5G급 라우터 시범 설치



성남시내 1431곳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5~20배 빨라졌다.

성남시는 최근 4개월간 지역 내 공공와이파이 통신장비를 고성능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여 1331곳은 LTE급 라우터를, 100곳은 5G급 라우터를 각각 설치했다.

시내·마을버스 839대, 버스정류장 408대, 탄천·공원 179대, 이동형 5대가 해당한다.

LTE급 장비가 달린 곳은 종전

10Mbps(초당 10메가비트 전송)의 5배 속도인 50Mbps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적용된다.

50Mbps는 1GB(기가바이트)의 파일을 2분 40초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 존이 형성된 반경 30m 범위에서 고화질 HD 영상을 10명이 동시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는 정도다.

무선 통신 구간 암호화도 적용돼 유해 네트워크 접속이나 해킹을 차

단한다. 5G급 라우터 장비가 달린 곳은 종전보다 20배 빠른 200Mbps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200Mbps는 1GB의 파일을 40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초고화질 UHD 영상을 20명이 동시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5G급 라우터는 공공와이파이 이용량이 많은 야탑역, 모란역, 정자역 버스정류장과 시내 주요 거점을 겨냥하는 51번, 300번, 200번 버스, 성남시청 광장, 율동공원 등에 시범 설치했다.

올해 1~4월 성남시 분석자료를 보면 공공와이파이는 한 달 평균 153만8824명이 접속해 3만8375GB를 사용했다. 이를 통신비로 환산하면 한 달 평균 5억원을 절감한 효과와 같다.

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를 지속 확대·설치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무선 인터넷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여 정보복지에 이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부천 이야기 담은 '우리동네라디오'

부천문화재단, 12월 말까지 '부천마을미디어' TBS 라디오 방송

부천 시민이 전하는 마을 이야기가 라디오 전파를 탄다.

부천문화재단은 6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7개월 간 TBS FM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동네라디오 시즌2'에 참여한다. 우리동네라디오는 경기 지역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 시민미디어센터가 해마다 선발해 지원하는 '부천마을미디어' 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참여한다. 부천마을미디어는 방송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 직접 추진하고 공동체 회복과 소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첫 방송 출연은 올해 부천마을미디어 선정 단체인 '부천원소'로 이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크리에이터 '모누씨'를 소개한다. 모누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대학생 모임이다.

두 번째 방송은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출연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년 인권에 대해 다룬다. 이후 코로나19로 변화



된 온라인 교육 실태, 마을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청취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천마을미디어 단체는 부천원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희망샘 주민기자단, 어바라 등 4곳이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TBS FM 95.1 채널을 통해 오후 9시 44분부터 15분간 청취할 수 있다.

한편 경기권 미디어센터(부천·고양·군포·성남·수원·의정부·화성)

중 콘텐츠 유통지원 거점센터인 재단 시민미디어센터는 지난 5월 경기콘텐츠진흥원, TBS, 경기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경기도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TBS <우리동네라디오 시즌2> 제작을 위한 상호협력 지원을 약속하고, 부천을 비롯해 고양, 성남, 수원, 군포, 의정부 등 경기권 미디어센터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

전순희/기자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만화콘텐츠 유통 확대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주) 양 기관이 지난 6월 4일 프랜차이즈를 통해 만화콘텐츠 유통 및 프로모션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성만화제작 지원 사업' 등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결과물이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유통과 프로모션이 활성화된 사례에 기인하여 이를 전 지원 사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만화콘텐츠 유통 및 프로모션'과 '우수 만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양 기관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 협

력 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기타 만화콘텐츠 유통 및 프로모션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24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업무협약과 동시에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202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창작 지원 사업' 선정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7일과 7월 15일 2회에 걸쳐 클라우드 펀딩 설계와 프로젝트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 만화분야 창작자를 위한 리워드와 홍보 제안을 내용으로 비대면 교육을 통해 창작 지원 사업 결과물의 유통과 프로모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개별 컨설팅도 진행 할 계획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략사업팀 김선미 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사업 수혜자들에게 창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작 결과물에 대한 유통과 프로모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작가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평택시, '체육회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 유감표명

평택시는 6일 최근 불거진 평택시 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에 대해 시장 주재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할 것을 체육회에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평택시는 체육회로부터 직원 선발 위탁을 의뢰받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 지난 3월 체육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재까지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미루고 있어,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체육회 직원 임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체육회에 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임용을 촉구 하여 왔다.

정장선 시장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 중 선발된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입장과 의사를 청취할 것"이며 "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책임 기관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세계 환경의 날' 학생들과 옥상 열기 식혀주는 '쿨루프' 시공

광명시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쿨루프 서포터즈와 함께 명문고등학교 옥상에서 '광명쿨루프 에너지 세이버 프로젝트' 캠페인을 열어 지구 지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개그맨 양상국, 김복례 명문고등학교장, 청소년 쿨루프 서포터즈 학생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광명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원광명 경로당, 도시재생지역 취약계층 이용시설 옥상 등 27개소에 쿨루프를 시공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관내 학교 1개소를 선정하여 쿨루프 서포터즈와 함께 쿨루프 시공 전과 후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로 오는 8월 성과보고회를 개최 예정이다. 쿨루프는 도시열섬 현상의 주요 원

인으로 지목되는 건물 옥상 등에 햇빛과 열의 반사 및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 등을 시공하여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공법으로 옥상 바닥 온도는 10도, 건물 실내온도는 4~5℃정도 낮아지는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학생들과 쿨루프 스피드 퀴즈, 학생들과 함께하는 Q&A, 게임 등을 통해 쿨루프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옥상 1,000㎡에 직접 쿨루프를 시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캠페인

은 저렴한 비용으로 냉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이자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열섬현상 해결을 위해 '쿨루프 사업'이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OO학생은 "오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쿨루프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기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사례발표, 제26회 경기환경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순희/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주말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 점검 나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6일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을 참배한 후 관계 공무원 수행 없이 정무 비서관을 동행한 채 시민 휴식 공간을 찾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평소 조 시장은 시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신조로 공간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조 시장은 주말을 맞아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REMEMBER 1910 역사 체험관과 청학밸리리조트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불편한 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듣고 꼼꼼하게 체크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기라도 하듯 지난 3. 26. 개관한 REMEMBER 1910 역사 체험관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 8천 여명이 다녀갔으며, 지난해 7. 1. 개장한 이주 업그레이드를 거쳐 올해 6. 1. 재개장한 청학밸리리조트는 개장 전부터 시민들로 북적이는 등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명소가 자리매김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때 홍보가 이뤄진다."라며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자 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시장은 평내호평역 인근에 조성돼 오는 11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석영신흥상회와 평내호평역 광장 분수대 설치 공사, 진접 펜그라운드 조성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석영신흥상회는 시가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천300㎡ 규모로 조성한 청년창업센터로, 현재 29개의 점포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진접 펜그라운드는 청소년기 때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 중인 청소년 전용 시설로 청소년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오직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과거 진접읍사무소 시설에서 진접 문화의 집으로 이용되던 구 건물을 철거한 뒤 공사 가림막 설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조 시장은 진접 펜그라운드 공사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림막을 설치할 때 시민들이 해당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잘 명시해서 설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5일에도 관계 공무원 및 동양하루살이 방제대책위원회(위원장 조양래), 시민들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동양하루살이 출몰 상황 등을 확인했다. **최정근/기자**

수원문화재단이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에 함께합니다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배)은 7일 김영배 대표이사 등 40여 명이 행궁동 일원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 분리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은 재단 직원과 함께 민효근 행정동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환경관리원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3개 조로 나누어 각각 생태교통마을과 남수문, 화홍문 일원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에서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최정근/기자**

김영배 대표이사는 "수원시가 지난 2월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감량 정책에 재단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4개 동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분리배출·무단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리는 등 지속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 '제5회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쾌거!

구리시는 4일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 주관 2021년 제5회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 관리 7개 분야와 시·군 특화사업 지표분야의 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리시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군 특화사업 지표분야에 해당하는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 구리' 정책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위한 G3740(구리 3대 분야, 7대과제, 40개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중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분야에서 ▲생활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도로 구축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분야에서는 ▲E-커머스 조성사업 ▲푸드테크밸리사업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시민설문 조사를 통한

'그린뉴딜, 구리' 구리시민 실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하수처리수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로 자동 청소,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등 사용과 더불어 미세먼지와 폭염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 구리'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생활속 작은 실천부터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성시, 2021년 드론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 모집

안성시는 오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2021년 드론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1년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은 드론 자체 중량 2kg~7kg 범위 내의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3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과 및 실기 수업이 진행된다.

시는 올해 시행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시민들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모집인원은 약 60여명이며, 접수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드론은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분야이다. 안성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속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남해군,조기폐차2차지원사업실시

신청기간은 6월14일~6월18일까지로 방문접수 시 차량 홀짝제 적용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세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나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 중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설 및 장착불가 차량일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강영훈기자

신청기간은 6월 14일 ~ 6월 18일 까지로 방문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만일 방문 접수할 경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여 조기폐차 신청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짝수일, 홀수(1,3,5,7,9)인 경우 홀수일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은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선착순이 아닌 우선지원대상자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차량을 확정·통보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2차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액과 차량별 실제 보조금을 혼동한 문의전화도 많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정액제가 아닌 보편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산정표에 의해 차량 연식 및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울산광역시, "아이들의 꿈을 두 배로"

현대미포조선,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

현대미포조선이 울산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는 6월 8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현대미포조선(사장 신현대)이 울산지역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한선영)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현대미포조선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모아 마련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디딤씨앗통장' 개설 후 매월 저축을 하지 못하는 아동 중 자립 준비가 필요한 100명의 아동에게 전달된다.

이번 후원은 현대미포조선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올해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총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후원기간 동안 해당 아동의 통장에는 정부(시) 매칭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총 300만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금액

을 저축하면 정부(시)가 월 5만원 이내에서 1대1 매칭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적립금은 대상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취업준비,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아동들의 자립에 디딤돌이 된다.

울주군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김모 씨(29세) 역시 자립할 때 디딤씨앗통장의 도움을 받았다.

김모 씨는 대학에 다니던 중 취업에 성공해 대기업에 입사하였다가 평소 관심 가지던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자 대학 졸업 후 서울의 전문학교로 다시 입학하였다. 입학금 마련과 타지에서 생활비 부담이 컸으나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850여만원이 있어 충당할 수 있었다.

김모 씨는 졸업 후 관련 업계에 취업하여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론칭하는 등 창업을 시작하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대미포조선의 이번 후원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



회에 나갈 수 있도록 나서주시 현대미포조선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사장은 "급여 1%를 모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희망의 밑거름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디딤씨앗통장 후원 사업을 통해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대미포조선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10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리더'

인재양성사업에 5,4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울산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결연후원 2,400만 원,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안마기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의 아동들을 위한 결연후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8,000여 명의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993명의 아동에게 25억 5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아동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기자

하동군 윤상기 군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영예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가 최근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는데 이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동체역량 증진분야에서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탄소없는마을 벨트 완성'이란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거버넌스센터 주관으로 올해 3회

째를 맞은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시상한다.

윤상기 군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부터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화계·약양·청암면

을 축으로 지리산권 11개 마을을 탄소없는 마을 벨트로 조성해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립 여건을 갖췄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위기 속에 무엇보다 환경보호의 가치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요즘 선제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마을 주민 스스로가 환경 파수꾼이 돼 마을을 지키고 보존하게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실제 군의 지원으로 소수력, 태양광, 소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억 20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기도 했다.

또한 탄소없는마을추진위원회와 생태관광 아이템 개발 및 마을 브랜드화를 통해 반달도시락과 농·특산물 패키지를 판매하고, 생태체험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산소사위길 체험, 실산습지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해발 800m의 지리산 청정지역 의신마을의 공기를 상품화한 공기캔 '지리어'가 대한민국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취득해

마스크를 구비한 신제품까지 출시됐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탄소없는 마을은 2018년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선정되고, 2020년에는 행안부 '탄소없는 마을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6억원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윤상기 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생태문화 조성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주민역량을 물론, 탄소없는 마을과 연계한 관광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윤상기 군수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도내 군단위로 유일하게 최고등급(SA)을 받았다.

윤 군수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활력 있는 경제 분야 등 총 7개 분야 66개 공약사업으로 로드맵을 구성해 5월 말 현재 교육 분야 100%를 비롯해 전체 85%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 최고 평가를 받았다.

최광용기자

중구,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대학 5기 개강

4개팀 10명씩 40명 참여 운영...8주간 역사자원문화자원 등 발굴, 선진지 견학 등 진행

울산 중구는 7일 오후 2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대학 5기 개강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수강생 40명, 현장지원센터 관계자 등 전체 50여명이 비대면 줌인 ZOOM을 통해 참석했으며, 교육 운영에 대한 설명에 이어 팀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5기는 '마을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친환경마을 만들기 ▲마을 장터팀 ▲시간은행 돌봄팀 ▲문화관광 기획팀까지 4개 팀에 10명씩 40명이 참여해 8회의 팀별활동과 개강식, 수료식, 선진지 견학 등 전체 10회로 운영된다.

도시재생대학 5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감성을 지배하는 영상제작과 타임뱅크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배울 수 있는 '도시재생 열린 특강'도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달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거쳐 선별된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시간은행 돌봄팀을 운영함으로써 타임뱅크를 좀 더 널리 알리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은 2018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병영2동의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인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깨어나라 성곽도시'는 병영2동 일원 3만5,000㎡에 국비 50억원 등 전체 1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며, 병영성을 활용한 특화동네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코로나 19의 상황에 개강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부산 박형준 시장,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부산 만들겠다"

8일 교육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이 함께 교육 현안 논의

부산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6월 8일 오전 3시 부산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교육과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요청 ▲산학관 협력 체계 기반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한 직업계고-지역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 협의의 안건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와 교육청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사천시체육회, '특수법인'으로 9일 공식 출범

임의단체였던 사천시체육회가 오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7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체육회는 지난 5월 14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등기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법인 지위를 갖게 됐다.

사천시체육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3월 17일 창립총회 개최, 5월 3일 사천시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법인 대표는 현 사천시체육회 권택현 회장이 맡게 됐고, 52명의 현 임원도 전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사천시체육회는 법인전환을 계기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만큼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수익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시와 공공사무의 위탁 등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특수법인 사천시체육회는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체육인의 인권과 권의 보호에 이바지 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택현 사천시체육회장은 "법정법인화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책임감 있는 자치운영의 발전을 마련했다"며 "사천시의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우수선수 발굴 육성의 베이스캠프로서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체육인의 인권과 권의 보호에 이바지 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

강영훈기자

상주시 청년공동체 이인삼각, 로컬 정착 프로젝트 참여 청년 모집



상주시는 지역 청년 협동조합 이인삼각이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창업·창직을 통해 지역 정착에 도전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들로 구성된 이인삼각 협동조합은 지난 4월 전국의 144개소가 결합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에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은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역 정착 시도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인삼각은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상주 원도심에서 '로컬러닝메이트'라는 밀착코칭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할 20여 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현재 1박2일 사전프로그램 '아무튼 상주'가 진행 중이며, 7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8주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아찾기 및 지역탐색, 로컬 브랜드가 되어 창직하기, 창직 실험 등 3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나만의 일자리 프로젝트 기획, 퍼스널 브랜딩 워크숍, 취향저격 동아리 찾기, 플리마켓, 캠프데이, 한여름 밤의 파티 등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갈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비 면제, 숙소 제공,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공간 지원, 정착 밀착코칭, 창업·창직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8주 프로그램 수료 후 상주시에 정착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장기 밀착코칭, 프로젝트 지원금, 숙소 등 추가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조우리 대표는 "4년 전 서울에서 상주로 이주하며 '라키키'라는 로컬 브랜드를 통해 잘 자리 잡은 것처럼 참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꼭 맞는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인삼각 구성원 모두가 상주에서 창직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청년인 만큼 이런 역할에 적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한영 상주시 경제기업과장은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역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정책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로컬러닝메이트 온라인 지원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한반식기자

대구시 탄소중립 미래,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다

'대구시 탄소중립 시민협약체' 발족, 각계 인사 40명으로 구성



대구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전문가, 기업인,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탄소중립 시민협약체(이하 "협약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구시 탄소중립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협약체 위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위원은 ▲시민생활 ▲기후환경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건설·도시 ▲산림·농축산 ▲순환경제 8개 분야별로 5명씩, 총 40명이 위촉되었다.

협약체를 통해 탄소중립 전략이 충실히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협약체 위원에는 산·관·학 전문가, 기업인,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대표 등이 고루 위원으로 포함됐다.

협약체는 앞으로 각 분야별로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제와 실행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대구시는 2010년 지자체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1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작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대표도시로서 205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을 주도한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Race to Zero' 캠페인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는 등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연대·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협약체 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지역에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탄소중립 시민협약체는 대구시 탄소중립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만드는 구실점이 될 것"이라며, "협약체를 주축으로 탄소중립을 정착·확산시켜 사업과제와 실행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대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포항시, 마이크로바이옴 핵심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마이크로바이옴센터 구축으로 K-바이오 랩허브 유치사업 연계 강화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스텍과 함께 교육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대학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의 조성·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핵심연구지원센터의 활용·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연구 장비 구축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본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6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필수적인 시설인 무균동물시설(Germ Free)과 유세포분석기(FACS)를 집적시킨 센터를 구축해 국내 산학연 기관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숙주 생리 작용

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면역, 암, 신경 대사 질환 등 현대 사회에서 계속 증가하는 난치성 질환의 발병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마이크로바이옴과 숙주 간 상호 작용 및 이를 제어/조절하는 기법 발굴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질환 발병/진행과의 높은 관련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해 질환 치료제 개발이 주목 받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분변 이식, 유용 미생물 활용과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질병 진단/의약품 글로벌 시장은 2024년 12조 규모 이상으로 고성장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포스텍의 연구 인프라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진이 있는 포항에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조성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원천 기술 개발과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며,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과 연계하면 포항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의 최첨단 연구 장비를 보유·확충 중에 있으며 포스텍, 한동대의 생명과학분야 연구 인적 인프라도 풍부하다.

구조 기반 신약개발에 특화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를 진행 중인 포항시는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핵심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작년 구축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와 올해 준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인공장기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의 R&D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바이오 관련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한국의 바이오 허브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청도군 "태양광 LED 도로명판" 골목길을 밝히다!

청도군은 가로등이 없는 야간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고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보행자용 '태양광 LED도로명판' 107개소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LED도로명판은 낮 시간대에 태양광의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에 점등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야간에 LED 불빛이 밝아 식별이 용이하고 조명효과도 뛰어나 주민들이 어두운 골목길 귀가 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태양광 LED도로명판 설치로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 야간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경주시, 경주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개최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주문화도시 지정 신청 계획



'천년유산을 깨우는 문화도시 경주'라는 비전을 걸고 지난 3월에 출범한 (재)경주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은 7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조철제 경주

문화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사업단은 보고에서 △경주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추진방향 △사업 구상 및 추진체계 △지정분야 특성화 계획 △시민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향후계획 등을 제시하고, 전문가 등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문화도시사업단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보완하고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까지 경북도를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주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있게 연구하고 알찬 계획서를 수립하느라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며, "남은 기간 경주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계획서를 잘 수립해 그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지정신청 접수를 받고, 서면검토·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경주시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예비도시로서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게 된다.

한반식기자

예천군, 컨셉이 있는 신도시,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

예천군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중 예천을 대표하는 3명 위원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도시 건설 2단계 계획안 변경 설명회'에 참석해 "2단계 계획에는 반드시 신도시 주민 불편 사항이 반영된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자리는 이철우 지사, 김학동 국회의원, 김학동 예천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경상북도개발공사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추진현황 보고와 핵심내용인 '신도시건설 2단계 변경계획안' 설명 후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학동 군수는 "컨셉이 있는 신도시 건설, 주민의 의사와 불편 사항이 개선된 2단계 계획 수립과 예천지역에 중학교 반드시 신설" 등을 주장했다.

경도대 황의현 위원은 "전문분야 인력과 관련 선도지구에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의 영향 고려,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중학교 신설"을 건의했다.

예천군체육회장 이철우 위원은



"종합운동장 부지 유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재검토, 1단계건설 실패사태 2단계 개선, 중학교 신설, 터미널 건설 검토"를 제시했다.

이어서 신도시가 지역구인 안희영 위원은 "보고된 계획안대로 중학교가 신설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며 "가까운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로서 참석한 많은 건설위원들은 컨셉 있는 신도시, 미래를 바라보는 신도시,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한 신도시 건설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철우 지사는 예천 지역 중학교 신설 검토와 함께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김세기기자

장흥군, 대표 작목 '블루베리' 본격 출하



장흥군은 매년 초여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슈퍼 푸드인 장흥 블루베리·베리폼에(愛)·를 본격 출하한다고 밝혔다.

블루베리는 노지 재배인 경우 6월부터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장흥군에서는 시설하우스(10농가, 3.1ha) 무

가운 재배로 수확 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긴 5월 초부터 첫 출하를 시작한다.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고당도 과실의 조기 출하 덕분에 소비자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빨리 맛볼 수 있고, 농가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김정길/기자

장흥군은 블루베리를 2014년부터 대표 작목으로 선정하여 노지작물과 원 스마트팜 실증연구 사업 지원, 조기수확 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농자재 투입, 수확 후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블루베리 면적 18ha, 45농가(무농약 인증 22농가)를 육성하여 친환경 급식에 선정·납품되는 등, 안전농산물의 명성과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전국 명품 친환경 블루베리 생산지로 자리매김 중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확대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강화와 소비자 선호품종으로의 지속적인 품종 갱신을 통한 고품질 장흥 블루베리 생산으로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따라잡겠다”며 “장흥군 블루베리·베리폼에(愛)·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해남관광,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명현관 군수 공룡화석지 물놀이장 신축 등 관광 현안사업 현장점검



명현관 해남군수는 4일 관내 주요 관광분야 기반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 이후 해남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명군수는 물놀이 체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우항리 공룡화석지와 우수영 울돌목 스카이워크·해상 케이블카, 화원 매월-양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조성되고 있는 물놀이 체험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해남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공룡박물관에 물놀이 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오는 6월 준공, 울여름 개장을 목표로 물놀이 슬라이드와 풀장, 바다분수 등이 조성된다.

명량대첩 승전지 우수영 울돌목에는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다.

총길이 110m의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회오리 바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장소로, 강강술래 등을 모티브로 해 둥근 모양으로 조성된다. 바다쪽으로 직선거리 32m까지 돌출되고,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스릴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공정을 80%를 돌파했으며,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이다.

해남과 진도간 해협 960m를 가로지르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도 명량

대첩축제 개최 전 운영을 목표로 오는 9월 개통예정이다.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운영되며,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 일원 1854㎡(지하 1층, 지상 3층)와 진도군 녹진타워 일원 504㎡(지하 1층, 지상 1층)에 승강장 등이 건립된다.

해남 화원~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공사가 8월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매월리에서 양화리를 잇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목포구등대~양화간, 화원 후산~장수간 해안도로 건설공사를 추진중으로, 화원 매월리를 시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 약 23km를 잇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서남해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절경의 해안도로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도77호선 연결과 지방도 확포장 등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목포구등대 등 화원면 일대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선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백신 접종 추이 등을 지켜볼 때 울여름부터는 관광분야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관광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 수산경영인과 어업발전방안 모색

7일 온오프라인 간담회서 ‘섬 주민 1천원 여객선’ 등 약속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수산경영인들과 온오프라인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섬 주민 1천원 여객선 운영 등 어업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동익 전남수산경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목포시 등 15개 시군연합회장 등 20명이 도청 서재필실에서 참석하고, 각 읍면동회장, 총무 등 80명이 해양수산과학원 9개 지원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어업어촌 현장에서도 시청하도록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으뜸전남튜브’로 생중계했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수산 분야 3대 질서 확립, 김 수출 3억 불 프로젝트,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 운영, 재해보험 가입 및 입식 신고 이행,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올해 해양수산정책을 설명하고 수산업 경영인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어업어촌을 굳건히 지키고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등 수산업과 해양 발전을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어업인이 어촌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면서 돈 버는 해양수산업을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익 회장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어업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에 힘써줘 감사하고, 전남도가 제26회 바다의 날에 해양발전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한다”며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어, 수산경영인도 현장에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산경영인들은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소외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자는 것은 물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섬 주민 1천원 여객선 운영을 지원하는 등 15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해상풍력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군, 사업시행자, 어

업인과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섬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생활구간(운임 8천340원 미만) 741개 구간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1천원 여객선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수산경영인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과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앞서 1만 3천여 전남 수산경영인은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안/기자

정읍시, 칠보보건지소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

교차로 차량 소통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정읍시가 지역 내 교통 상습 정체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칠보보건지소 앞 사거리를 회전교차로 교통체계로 변경하고 본격 개통했다고 7일 밝혔다.

칠보보건지소 앞 사거리는 지방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고, 과속운행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통행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도로 이용 편리성 향상은 물론, 차량 정체 해



소에 따른 배기가스 감소와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대기 없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 중인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고 운행하며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빈도를 50% 이상 낮추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진섭 시장은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개선과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전남도, 친환경 부표 보급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전라남도가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해양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오는 2024년까지 100%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기 위해 보급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해역에는 김, 미역 등 양식장 9만 9천855ha에서 5천400만 개의 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도에서 공급한 친환경 부표는 700만 개로 전체 부표 사용량의 13% 정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66억 원 늘어난 2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 부표 400만 개를 보급한다.

* 지원 : '20) 112억, 346만개 '19) 53억, 56만개 '18) 53억, 64만개 '17) 81억, 97만개 '16) 54억, 124만개 '15) 5억, 9만개

김양식 시설이 집중된 해남과 진도, 2개 해역 2만 5천ha를 ‘친환경부표 100% 보급 중점 해역’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은 친환경 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 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친환경 부표를 구입하면 전체 비용 중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보조하므로 어업인 자부담은 30% 규모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해양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올해보다 26억 늘어난 123억 원을 요구했다”며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장성군 “나도 농튜버(농업인+유튜버) 되어볼까?”

농산물 온라인 판매 역량 향상 위한 ‘e비즈니스’ 강좌 개설... 25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인의 인터넷 활용 역량을 강화해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교육 과정은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활용 교육(1차) ▲라이브 쇼핑 참여를 위한 활용 교육(2차)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본격 ‘농튜버’(농업인+유튜버) 양성이 목적이다.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영상 촬영과 제작, 유튜브 활용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2차 교육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라이브 쇼핑 입점부터 트렌드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내

용들이 주를 이룬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 신청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이다.

교육 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7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총 교육 과정의 80%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정보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2021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21. 6. 7. ~ 6. 25.(3주)/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40명(과정별 20명)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교육기간: 21. 7. 5. ~ 9. 23.(과정별 8회씩, 총 16회)
 ● 교육장소: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
 ● 교육내용: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활용
 -라이브쇼핑 참여를 위한 스마트스토어 활용 교육
 ● 문의사항: 061-390-8459 농촌협력과 농촌경영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 창업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시, 팔복동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어 최종 당선작 선정



전주시가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최근 팔복동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길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성장기업을 위한 클라우

드 창조공간, Up-Clouds'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축설계 공모는 지난해 10월 조성된 전주혁신창업허브의 창업동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 당선작에 대해

“기존 전주혁신창업허브와의 연계와 조화를 이뤄 잘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기업의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계하고, 공유와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층별 지원공간들을 마련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계획된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 작품을 출품한 건축사와 함께 이달 중 설계용역에 착수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26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에는 기업 입주시설, 교육·컨설팅 등 네트워크 공간, 각종 제조장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창업 이후 성장이 필요한 유망기업에게 입주공간과 시장출시제품 제작 및 양산 시스템 구축공간이 제공돼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업 친화형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노송동에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전북대학교 내에는 오는 2024년까지 산학공동 실험실인 산학융합플라자를 조성키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 개관한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는 오는 2023년까지 복합소재가공지원센터와 소공인 집적 지구 공동기반시설도 건립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업성장의 거점이 될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해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와 대학과 연계한 산학융합플라자 등 지역경제를 살릴 거점공간이 속속 들어설 것”이라며 “지역의 유망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축설계 공모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 전 과정이 유튜브(전주시 LIVE)로 생중계됐다.

김승일기자

부안군, 로컬푸드직매장 '텃밭할매' 개장



부안군은 4일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부안로컬푸드직매장 '텃밭할매'를 정식 개장했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원택 국회의원,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최훈열 전북도의원, 부안군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식 개장을 축하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원했다.

부안을 봉덕리에 336㎡ 규모로 마련된 로컬푸드직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200여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우리밀 베이커리, 가공식품 및 반찬 등 총 230여 품목의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로컬푸드는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생

산농가는 소득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주부 이모(35세)씨는 “그동안 지역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장을 보러 다녔으나 부안에도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겨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형 푸드플랜의 첫발을 떼는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으로 지역내에서 생산·가공·소비되는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정읍시 정읍시립도서관 '다문화 홈카페 마스터 과정' 성료



정읍시립도서관이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진행해온 다문화 홈카페 마스터 과정이 지난 3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다문화 홈카페 마스터 과정'은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커피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

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인원 제한, 거리두기 실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됐다.

수업은 커피 기초지식과 라떼아트, 사이드 메뉴 만들기 등의 실습 과정으로, 커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이주여성 10명이 참여해, 20시간의 필수 교육 시간과 필기시험으로 진행됐다.

이중 총 7명의 다문화 여성이 한국커피협회가 발급하는 홈카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A씨는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커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홈카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이 지역 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하은기자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에너지 전환사업 박차

남원시 인월면 지역 청소년들이 탄소저감 식물인 케나프(양상)를 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다짐했다.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단장 임영란)은 6월 5일 오전 9시부터 인월중·고등학교에서 학생 12명과 함께 케나프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주도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남원시는 2020년 여름 54일 동안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와 강우량 400mm 이상의 폭우, 2021년 초 영하 20도에 달하는 북극한파를 겪는 등 극심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전북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이에 발맞춰 추진단 7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는 인월중·고등학교와 공동 주

관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케나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케나프 모종을 심는 시간이 마련됐다. 모종 심기 이후에는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팻말로 만들어 설치했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케나프를 통한 탄소 저감을 응원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다.

한편 케나프는 성장속도가 1년에 3~5미터에 달하는 식물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타 식물에 비해 5~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작물로 한지 및 종이의 원료가 되며, 경관, 제염 및 녹비, 식용 및 사료용으로 두루 이용할 수 있어 농업·산업 분야의 활용도도 크다.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케나프를 주민주도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매개로 삼아 다양한 단체·주민과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남원시농민회,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보정면 일대에 케나프 씨앗 심기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26일 남원시농민회와

케나프 모종 심기를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기간 중 지역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을 통해, ▲탄소흡수 극대식물 시범재배 사업 ▲지역 특화 생활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지역 탄소중립 연구사업 ▲마을·단체 및 시설 에너지 절감사업 ▲탄소중립 생태전환 시범마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www.yyg.go.k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태안군, 청년태안살이체험 프로그램 추진!

충남 외 지역 거주 만19세~만39세 청년 대상,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



파도를 타는 태안살이

신청기간 | 2021.05.25.(화) ~ 2021. 06. 18.(금) |

활동기간	활동내용	지원내용
2021.07.01.(목) ~ 2021.07.14.(수)	태안지역 탐방 만리포 서핑 청년 네트워킹 캠프	체험비 및 숙박비

신청조건: 충남 외 지역 생활권자 만19세~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가능 (중남 외 지역 생활권, 나이 제한 중립형 필수)

모집인원: 청년 20인 내외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QR코드) <https://forms.gle/0446sqz2Z4RchDz099>

신청날짜: 2021. 05. 21. (월)

문의사항: region09550@naver.com, 041) 674-5215

도전하는 모든 청년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태안군이 도시지역 청년들에게 태안살이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자 지역 각종 관광, 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역 청년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태안살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파도를 타는 태안살이'와 '충남 태안 5락(락)발전소 문화도 예술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파도를 타는 태안살이'의 프로그램 체험기간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충남 외 타 지역 생활권자 만19~39세 이하 남녀이다.

21명을 대상으로 만리포서핑 강습 및 자율체험, 태안 주요 시장 및 관광지 탐방,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년예술가들의 태안살이를 지원하는 '충남 태안 5락(락)발전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은 청년예술가 21명을 대상으로

로 하며 신청접수는 이달 16일까지이고 프로그램 진행날짜는 '파도를 타는 태안살이'와 동일하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예술가들에게 태안의 풍부한 관광, 문화 자원에 대한 탐방, 투어, 체험 등을 제공하고 협업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군은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태안에서 생활하며 지역 단체,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태안의 정착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문의사항은 '5락(락)발전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 충남형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에게 태안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인구 증가와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충주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 실시



2021. 주민생활향상형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행복한 우리 마을, 우리 함께 만들어요~
우리마을 복지계획 주민욕구조사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요

주소는 늘리는 복지(안전)과 복지(교육)에 대해 조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복지계획을 발굴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여기간: 2021년 5월 27일 ~ 2021년 6월 14일

참여대상: (우리마을) 주민 누구나

조사목적: 동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마을복지 의제 발굴

조사방법: 설문지 작성 또는 온라인 참여(www.cjssu.com)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43-910-0508)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4일까지 '더 가까이 마을복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더 가까이 마을복지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의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주도의 복지실천계획이다.

이번 주민욕구조사는 충주시 12개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충주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12개 동 지역 마을복지계획추진단과 서포터즈와 함께 수립하는 마을복지계획 의제 발굴에 반영하겠다"라며, "발굴된 의제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동별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주 · 충주의료원, 충북도립노인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질 대폭 개선

충청북도 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대폭 개선된다.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등에 2022년까지 총 645억원을 들여 의료장비와 시설 확충·개선에 나선다.

우선 청주의료원에 55억을 들여 MRI, CT, X-ray, 초음파진단기 등의 진단장비와 재활치료장비 등 총 31종 80여대의 의료장비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해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인다.

또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00억을 투입해 노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한다.

총 72억이 투입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도내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하고 편안한 입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스프링클러와 냉난방설비 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충주의료원은 북부권의 취약한 필수 의료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총 57억을 투입하는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공사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 91억원이 투입되는 재활 및 호스피스병동 증축 공사로 내년까지 마무리해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생활로의 조기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심장·뇌혈관질환 치료 전문 순환기내과와 신경외과 의사를 보강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서울보라매병원 등과 의료기술 자문, 의료인력 교류 등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서울보라매병원 의료진을 초빙해 심장질환의 심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22억을 들여 심장초음파진단기, C-arm촬영기, 환자모니터링장치 등 26종 140여대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음압설비가 구축된 호흡기 전담 외래환경 조성, 음압격



리병실 확충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충북도립노인요양병원은 준공된 지 20년(2001년 준공)이 경과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된 점을 고려해 총 36억을 들여 x-ray, 구급차, 환자용 침대, 생화학자동분석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고 병동 리모델링과 병실별 화장실 설치,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

편 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호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 시설·장비 보강과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한단계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삼척시, 청소년 전용 '한가람' 카페 생겼다!

오는 7월 14일 본격 운영



삼척시는 오는 9일부터 삼척시청소년수련관 1층 청소년 전용 카페인 '한가람'을 시범 오픈한다.

'한가람'은 '큰 강(江)'을 뜻하며 가람은 '강(江)'의 옛 우리말 표현으로 예부터 삼척오십천 주변 강 지역을 가람이라고 불렀다.

이 카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2021년 삼척시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소통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삼척시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동아리가 운영하는 '한가람' 카페 규모는 125.7㎡(38평)이며 관내 만9세에서 만24세인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가람'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한 청소년 누구에게나 무료음료와 문화공간이 제공된다.

아울러, 텀블러 지참을 독려하여 지구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고 1회용품 없는 카페로 운영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한달 간 카페를 운영 후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며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 카페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당진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당진시가 지난 4일 시청 아미홀에서 이진호 당진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10월 말 예비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수립된 당진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 라운드테이블 및 시민포럼 등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명문화도시 당진, 환경을 말하다'로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이진호 부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철학 아래 주민자치, 마을자치,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지역 사회의 작은 결성부터 실천까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 실행에 옮겨왔다"며 "축적된 주민참여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민-중간지원조직-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기적 협업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문화도시행정TF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시민기획단 '문화리더', 문화도시지원센터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 과정을 밟고 있다.

김민호기자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경찰청과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추진

첫 시책으로 의결, 대전시·대전경찰청과 협업 통해 단계별 고도화 진행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지역안전과 주민의 일상적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대전시 및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지역안전 업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함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현장경찰의 병원 내

장시간 대기 등 치안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대전시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을 통해 간소화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정기회에서는 단계별 기획된 관련 시책을 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하여 향후 관련 사안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책안의 세부내용으로는 단기로 응급입원전담조직팀 신설, 중기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로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의 협조가 필요한 단기과제와 관련, 대

전경찰청이 6월 중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여 관련 시책의 고도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강영욱 위원장은, "지역에서 주민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문제는 대상자의 인권 고려가 우선 필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주변 시민 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주민과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등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진주시정 BEST 10' 선정

주민 자발적 시정참여, 생활 밀착형 시책 호감도 높아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시민 편의 증진 도모에 기여한 우수 시책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진주시정 BEST 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정 베스트 10」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여 지난 21일부터 3일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 시책을 선정한 것으로, 진양교 개량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진양교 개량사업은 정체되는 교량을 확장하고 차로를 개선하여 사고 위험과 교통정체를 해소하였고 그 외 자전거 도로 확충, 평거 10호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베스트 시책으로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전거 도로 확충·개통, 유등테마공원 및 유등전시관 조성, 평거 10호 광장 교통체계 개선, 가로등 LED 교체,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서부경남 KTX 정부재정사업 등이 차려로 뽑혔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계자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안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간 우리시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쏟은 노력과 열정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이 모든 성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면서 “행정의 전 분야에서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접목

아산시, 2021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건 신규 선정



아산시는 2021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개 사업(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 트랙레코드 구축)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관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5억 원(국비 100억, 도비 57억8천, 시비 87억2천, 기타 50억)을 투입해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 기업에 인허가·실증평가·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국제 수준의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구축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 제품화 시제품 제작 △맞춤형 재생·재건의료 실증지원 △국제규격에 기반한 인허가 지원 △각종 실증평가 지원 △입상연계 실증지원 △핵심기술 사업고도화 지원 등이다.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은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참여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80억, 기타 5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 및 이송·운송 분야에 대한 개발·인증·입상평가·실증과정의 데이터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센터 건립 및 지능형 의수·의족 시험평가 장비 구축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허가 및 실증 기술지원 ▲의료진 중심의 임상 유효성 평가 지원 ▲기업 대상 맞춤형 트랙레코드 제공 ▲국제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지원 등이다.

아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공모사업을 통해 아산 R&D 집적지구(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74-12 일원) 내에 첨단바이오 분야의 성능·사용 적합성·유효성 평가 장비 등을 갖춘 전용 센터 2개 동을 신축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아산시가 첨단재생의료,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용인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어르신과함께 “행복한 가족집밥” 만들어봐요.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조혜영)은 지난 5월27일과 6월4일 두차례를 걸쳐 신갈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만 모여 “행복한 가족집밥 오늘이 내생일” “우리함께 만들어 먹어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선정되어 취약계층 어르신 54명에게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정을 몸소 실천 하였다.

이번 추진계획 사업은 홀로어르신 또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소외계층이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맛있는 식사대접과 평소 드시고싶었던 것을 봉사자와 함께 만들어서 내생일처럼 행복한 식사대접을 하고 봉사자들과 1:1 매칭 하며 재래시장 날들이 3:1 매칭을 하여 힐링하는시간을 만들어 행복했던 시간을 만들어 들이고자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자 추천은 신갈동(동장 장종찬)과 양지면(면장 윤근선)에서 추천을 받아 한분 한분 각 가정으로 전달을 해드렸다.

양지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모(94세)어르신께서는 오늘의 주인공 한모파리 (미역국,장조림,케익떡,멸치볶음,열무김치,식혜,과일,양말,손수건,효자손,쑤세미등) 한상차림



을 받아들고 명실당실 춤을 추시며 좋아하시면서 딸자식도 있는데 전화로 바쁘다는 핑계를 하던데 “내생일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눈물을 글썽이셨다.

신갈동에 거주하는 이모(84세)독거노인 어르신은 요즘 부산에 살고 있는 자식하나도 전화한통 없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모파리 챙겨주니 너무 감사하고 잘먹겠다고 복 받을꺼라고 하면서 손을 꼬옥잡고 농지를 양으셨다.

조혜영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

든요즘 신갈동과 양지면 어렵고 힘든 어르신에게 맛있게 드실수있게 식혜와 부치미 순수 반찬을 만들어 한상차림을 받아들고 기뻐하시는 어르신을 보고 힘은 들었지만 큰 보람을 느끼며 이번 기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봉사자들의 단체장 모임으로써 회원 1000여명은 용인관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며 출선수범 하겠다고 전하였다.

최근수기자

아산시, 행정안전부 주관 ‘온전도시 시범사업’ 공모 선정돼

아산시는 온전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온전도시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전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2곳의 지자체(충남 아산시, 충북 충주시)가 최종 선정돼, 2021년 하반기부터 온전도시 시범사업(선정 지자체 별 국비 1억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온전 이용객이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 목욕용 중심에서 벗어나 온천의 의료·산업적 이용 등 온천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같이 있게 모색하던 과정에서, 2021년 초 ‘헬스케어 스파산업 진흥원’을 설립을 통해 온천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시 출연기관인 ‘헬스케어 스파산업 진흥원’과 함께 온전도시 시범사업을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발굴했으며, 단기사업인 1단계(2021년) 사업을 통해 온천의료·관광 및 온천산업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며, 중장기 사업인 2·3단계(2022~2025년) 사업을 통해 온천의 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산에서 추진할 온전도시 시범사업으로는 온천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 구축 및 온양행궁 특화사업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2(온전도시의 지정)에 근거한 ‘온전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온천의료관광 및 온천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유주기자

의왕 대안사, 호국영령 천도법회 성금 전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회가 6일 의왕 대안사(주지 효성스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신도들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한편,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판매를 통해 모은 성금 150만원을 저소득 보훈가족 등 이웃을 돕는데 의미 있게 사용해 달라며 의왕시에 전달했다.

효성스님은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신도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천도법회를 이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신도분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2021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선정, 2억원 확보

광주 서구, 민간기업과 칸막이 없는 협업으로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에 기여



광주 서구가 추진하는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사업이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금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와 공공·민간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총 36개 사업이 공모했다.

3차에 걸친 국민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되며, 서구는 이 중 2억을 지원 받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서구의 협업사업은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사업”으로 대상자·서비스별로 분절

되어 추진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현황 파악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KT, ETRI와 같은 민간기업은 물론 서구청 내 복지정책과, 상무금속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서간 협업까지 더해져 한층 더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사업이 선정된 것은 해당 사업이 시대적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사업인데다 상호 협업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여 협업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김명윤기자

산청자활센터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꽃 나눔

산청지역자활센터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인 극단 ‘큰들’에 국화모듬 1000주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지난날 남사에담촌에서 진행된 제14회 산청군공예협회 작품전시 및 판매·체험 행사에서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판매수익금 170만원으로 이뤄졌다.

큰들은 기증받은 모듬을 마을 공터와 각 집집마다 심기로 했다. 식용국화기 때문에 매년 가을 수확해 큰들 공동체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준석 센터장은 “주로 지원을 받아오던 우리 자활센터가 지역사회환원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자활 생산품을 적극 판매·홍보하고 그 수익금을 사회와 나누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청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활동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산청군과 함께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청군푸드뱅크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인기 만발! 인천시립합창단 '정오의로비음악회' 한 낮, 로비에서 즐기는 합창

지난 4월 첫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인 인천시립합창단(예술감독 김중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인천광역시시는 6월 10일 낮 12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에서 '정오의로비음악회' 두 번째 무대를 펼친다고 밝혔다.

한가로운 정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정오의로비음악회'는 풍성한 합창의 화음을 코앞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김중현 예술감독의 친철하고도 전문적인 해설이 교감의 폭을 넓히고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든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8M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는 소규모 합창음악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이고도 좋은 음향을 가진 장소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

창영상 촬영 장소로 활용되며 그 적합성에 대한 검증은 마쳤다.

이번 무대에서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아름다운 나라', '비목', '멋진 사나이'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래들을 선보인다. 그 외에도 윌리엄 버드의 '섬만찬 찬송'과 같은 르네상스 마드리갈, 가요 '섬마을 선생님'을 편곡한 버전 등 다채로운 합창을 부른다. 단 50명으로 객석을 한정, 소수의 인원만을 초대하기에 합창 애호가들의 참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오의로비음악회'는 이후 인문학, 미술, 역사, 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와 합창을 엮어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립합창단 김중현 예술감독은 "첫 공연에 오셔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 하는 관객들을 보며 힘을 많이 얻었다.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연주로 보답하겠다."고 연주 준비 소감을 전했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정오의로비음악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을 사전예약 받는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

해 좌석 띄어앉기로 시행되며 입장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태프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중현/기자

한국-조지아국립공원 사진전 개최

우리나라와 조지아의 국립공원 대표 경관사진 100점 전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주한 조지아대사관 및 조지아 보호지역청과 함께 6월 7일부터 15일간 '한국-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공원공단 본사 1층 홍보관(강원도 원주시 소재)과 조지아 알제티 국립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동시에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로도 선보인다.

사진전은 우리나라와 '동유럽의 알프스'로 불리는 조지아의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총 100점(각국 50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사진은 매년 열리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중 국립공원 사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진들로 구성됐다.

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은 카즈베기 등 8개의 현지 국립공원 대표 사진들이다.

조지아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봉우리로 구성된 우수한 산악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카즈베기 국립공원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당한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배경 장소로 알려진 유명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사진전 준비

를 위해 주한 조지아대사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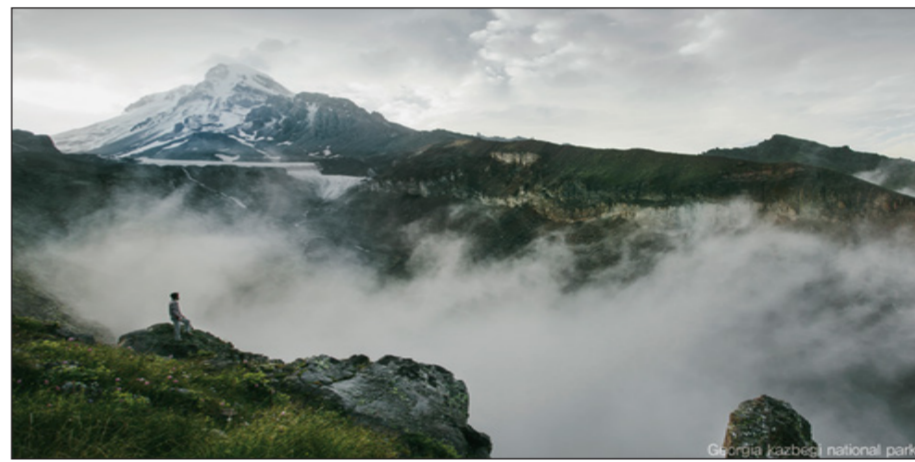
특히 이번 사진전이 양국의 국립공원 보전가치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예정인 조지아 보호지역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상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보호지역청은 국립공원공단이 아시아 지역 내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인 점과 자국과 비슷한 산악형 국립공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공원관리 기술을 전수받아 단기간에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국립공원공단 역시 신북방국가인 조지아와 교류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지역 내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양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우수한 국립공원 경관을 사진으로 감상하며 힘을 얻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부산시 ESG와 함께하는 북극곰축제, 축제에 사회적가치를 담다.

축제의 환경적가치 제고 위한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환경보호 플로깅 챌린지 개최



부산시는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 후원하는「제34회 해운대 북극곰축제(부제 "북극곰과 바다를 지켜주세요")」를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과 온라인(틱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곰축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매년 1월초에 차가운 겨울 바다에 입수하여 극한에 도전하는 도전정신과 한해의 건강을 다지기 위한 축제이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6월에 개최한다.

올해 북극곰축제는 비대면(온라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줄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바다 입수 대신 환경보호 캠페인(플로깅*) 행사를 개최해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할 계획이다.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플로깅 챌린지의 참가비 전액은 초록여린이재단의 기후변화 캠페인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문제 최후의 피해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라는 인식과 함

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 시키는 뜻 깊은 기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일상속 시민의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로깅챌린지 행사기간 동안,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일 개최하는 '쓰담걷기*(6월 주제: 탄소중립 나다! 쓰담걷기)'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 개최하여 축제의 환경적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이 북극곰축제의 "플로깅 행사와 초록여린이재단의 기부사업"에 동참할 예정으로 이번 참여를 통해 한국남부발전의 ESG 경영실천과 축제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제의 취소나 온라인 개최 보다는 ESG 개념을 접목한 축제 개최로 미래 ESG 축제의 원형을 만들어 나가고, 향후 개최되는 축제는 소비의 축제가 아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거듭나게 될 것이며, 북극곰축제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송파구청, 뮤지컬갈라쇼 기획공연을 이머시브형식으로 진행

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지역 특성을 담은 공연을 진행하는 관객참여형 공간이다.

6월 9일 아뜰리에 개관식을 마치고 6월 11일부터 총 5회동안 데파스 공연팀이 뮤지컬갈라쇼 기획공연을 이머시브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머시브는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 데파스란 팀은 출연인 배우들이 모인 최정상팀으로 꼽힌다.

최근 sbs 불타는 청춘콘서트에서 빛나는 무대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팀이며,이경화감독은 데파스 대표이며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뮤지컬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번 갈라쇼공연은 석촌호수와 배우를 바로 옆에서 볼수 있는 이머시브 형식이라 새로운 갈라쇼 느낌이 될것같아 무척 설렌다고 한다.

킹키부츠, 맨오브라만차, 시카고, 노틀담드파리, 아이다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함께 무대를 멋지게 펼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대전시립예술단 '온통행복 콘서트'개최



대전시립예술단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온통행복 콘서트'를 동구 지역 곳곳에서 4일간(8회) 펼친다.

이에 앞서 대전시립예술단은 동구 일대의 아파트 및 병원, 학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온통행복 콘서트' 공연유치 희망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아파트가 선정됐다.

이번 공연은 대전시립예술단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우리동네 문화가꾸기'화목한 문화산책'의 일환으로 기획하였으며, 전년도에는 '발코니 콘서트'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온통행복 콘서트'는 이동형 차량 특설무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를 통해 관람하는 형태의 대면 최소화 공연으로 시민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유성구와 중구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립예술단이 추진하는 '온통행복 콘서트'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립예술단은 추후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예술적 치유가 필요한 가정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개인을 찾아가 공연으로 위로를 전하는 공연대담서비스 '온리 유'도 계획 중이다.

고정화/기자

송파구

노르망디, 핑거프 시카고, 올림피아

펼치는 뮤지컬 갈라쇼

개관 특별공연 뮤지컬 갈라쇼

출연진 데파스

프로그램

- 노르망디 모음곡
- 시카고-레니
- SPECIAL, 장미꽃 연방곡
- 그로스-그로브(아리아)
- 지킬 앤 히드-피로 미혼
- 연방 불꽃가
- 웨딩-My strongest
- 웨딩 산문-This is me
- 올림피아-Run like you up
- 모든 것-이름 없는 꽃
- 모든 것-A whole new world

공연안내

공연날짜 6.11(금), 6.12(토), 6.13(일), 6.15(화), 6.18(목)

공연시간 19:00

공연장소 석촌호수 아뜰리에

무료 공연

문의 전화 02-2147-3244

송파구청은 석촌호수 수변 (구)고고스카페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석촌호수 아뜰리에'로 문을 연다. 작은 공연장과 전망대를 갖춘 공간은

'경기 이(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 한양대·한신대·인하대 우승

이(e)스포츠 산업 육성과 코로나로 침체된 대학문화 부흥을 위해 개최한 '경기 이(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이하 대항전)의 종목별 우승 캠퍼스 3곳이 가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막을 내린 대항전에서 ▲리그오브레전드: 한신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한양대 ▲영원회귀 블랙서바이벌: 인하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각 팀전 종목(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우승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우승트로피, 메달이 수여됐고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메달이 수여됐다. 개인전 종목인 '영원회귀:블랙서바이벌' 종목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 우승트로피와 메달이,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메달이 주어졌다.

대항전은 수도권 68개 캠퍼스 1,740명이 참가하는 등 각 대학 대표 선발전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4일 열린 본선에는 총 47개 캠퍼스가 진출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3판 2선승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

스'는 7판 4선승제, '영원회귀:블랙서바이벌'은 5판 점수제를 통해 결승 진출 캠퍼스가 결정됐다. 대회 최종일인 5일에는 '리그오브레전드' 한신대 vs 명지전문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한양대 vs 중앙대 구도로 결승이 진행됐고 '영원회귀:블랙서바이벌'은 인하대, 부천대 등 총 18개 대학이 결승에 진출해 최종 라운드를 펼쳤다.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우승팀의 팀장인 한신대학교 조성민 선수는 "그간 코로나19로 학생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면서 "대항전을 통해 학우들과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학생들의 열광적 반응을 통해 MZ세대 대학 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이(e)스포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이(e)스포츠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예비창업자 50개팀, 기창업자 200개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을 선정하는데 2,523개팀이 접수해 경쟁률 10.1:1을 기록하면서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과제 선발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지역성, 혁신성과 창의성,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역성 비중을 작년 30%에서 50%로 대

폭 확대했다.

선정 결과,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각각 56%와 49.6%로 2020년 창업 지원사업 평균인 49.2%와 21.9%에 비해 상당히 높아 청년과 여성의 창업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로컬푸드'는 강원 명란 젤라또, 의성 체험형 농가 레스토랑, 제주 파지 농산물 활용 편식 개선 밀키트 등 62개 과제, '지역기반제조'는 제주 해녀와 함께 연구하는 수산 스포츠웨어, 성주 참외 모티브 도자기 제품 등 54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역기반제조'는 제주 해녀와 함께 연구하는 수산 스포츠웨어, 성주 참외 모티브 도자기 제품 등 54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역가치'는 진해 근대역사문화드로잉북, 광주 독립출판물 기반 웹드라마, 제주 농수축산물과 소비자



를 연결하는 꿀을 프로젝트 등 46개 과제, '거점브랜드'는 조치원 폐정수장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 완주군 제지공장을 리모델링한 산속 등대 등 30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역특화관광'은 울릉도 추리게임, 충주 관아골 로컬 여행사 등 28개 과제, '자연친화활동'은 강원 서피비치와, 아산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등 17개 과제, '디지털문화체험'은 메타버스로 떠나는 100년 전 수원 근대역사기행, 단양 구전설화

증강현실(AR) 동화책 등 1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들은 사업모델 구체화, 마케팅, 브랜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가는 최대 1,000만원, 기창업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입주할 외국금융기관 유치 나서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부산광역시 D(Decacorn)-Space BIFC」)에 지난 12월 1차 공모 6개사 선정에 이어 역량 있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추가 유치하기 위하여 7월 2일까지 2차입주 희망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D-스페이스'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간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전체 면적 3,057.24㎡ 중 1,016.09㎡의 규모에 부산 금융산업발전이 이바지할 역량 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외국 금융기관 등 10개사 내외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금융기관 등은 1인당 10㎡ 내외의 공간을 3년 단위로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비, 인테리어 등은 자부담이다. 사업화 평가를 통해 2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국내 금융업 관련 자문 및 금융·투자 정보 제공, 외국인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 및 생활환경 안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신규 진입하는 상주 인원 1인 이상인 ▲외국 금융기관 ▲핀테크 관련 외국기업 ▲최근 3년간 펀드투자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벤처캐피탈 ▲금융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다.

다만, 부산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기업(기관)이 사무소만 이전하려는 경우, 부산국제금융센터 시설 보안 등을 고려하여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소, 국제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와 가상화폐 채굴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제외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7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을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해외금융기관 유치 기업설명회(IR), 글로벌 금융행사 참석 및 상담회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0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한국시티은행, GBR Capital Limited 등 6개사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역량 있는 외국 금융기관 등을 추가로 유치해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와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꾀한다. 나아가 부산 금융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금융의 메카인 BIFC 63층에 우수한 외국 금융 기관 등의 유치로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골목상점도 온누리상품권' 광산구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다문화 집결지' 산정상인회 제1호 지정서 전달



골목상권도 전통시장 수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가 탄생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산정상인회(회장 김강남)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먹자골목과 같은 외식업 밀집 상권 등이 그동안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나 각종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다.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광산구는 올해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해 골목상권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산정상인

회가 가장 먼저 신청을 접수, 지난 달 2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1호 타이틀을 얻게 됐다.

산정상인회는 고려인 등 외국인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집결지'와 인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마케팅,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 받은 김강남 산정상인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산정상인회는 뽕뽕 뭉치는 계기가 됐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빠른 시일 내 등록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다른 상권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광산로 상인회 2호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지정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상권별 상인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원할 노력이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경북농업기술원, 미래형 복숭아 '스마트 노지과원' 조성



경북농업기술원은 미래 대응 농업기술의 핵심 전략으로 청도복숭아연구구에서 '미래형 스마트 노지과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재배면적 20,166ha 대비 46%의 복숭아를 재배하는 국내 최대 복숭아 생산지이다. 특히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은 도내 복숭아 주산지로서 국내 생산량의 31%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복숭아 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온난화의 환경변화에 직면해있어 미래 복숭아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농촌진흥청의 집중 육성 지역특화작목으로 복숭아가 선정됨에 따라 농촌연구 고령화와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나선다.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3년간 도비 17억 원과 농촌진흥청청 국비 17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육종, 재배,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64,000㎡의 부지에 조성된 기존 연구시설 중 48,000㎡를 새로 조성해 신품종 육성, 스마트팜 및 기계화 수형개발 연구에 활용하게 된다.

경북지역 최초로 '스마트 노지과원' 연구기반이 조성되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한 연구시설을 개선하고 산재한 유전자원 보존, 시험포장의 재배치로 미래 대응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스마트 노지과원'은 AI 관제센터의 통합제어를 통해 온도, 습도 및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원격으로 정밀관수·관비, 무인 병해충 관리, 여름철 고온, 불철 병해 관리 등 과원 통합관리가 가능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특히 현재 시설원에, 축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노지까지 확대 적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과원관리 모델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과수 농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용승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최신 재배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역할이 가능한 '스마트 노지과원'의 선도적인 구축은 미래 복숭아 산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내 유일의 복숭아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김세기기자

경상남도,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오늘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2020.1.1.부터 2020.12.31.기간 중 만18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nchn@gntp.or.kr / 문의전화 055-259-3363)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과 경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주)이산산업(대표 김경식)은 통합계측 시스템 및 다이나모미터 제조업체로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하고 9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직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했다. 김두식 대표는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직원휴게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진작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말했다.

(주)한성기어(대표 이병원)은 '기어(gear)' 전문 기업으로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고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설했다. 소속 직원(김영은 대리)은 "화장실 갈 때면 냄새나고 지저분하여 얼굴 찌푸리게 되었는데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계기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된



것에 다른 직원들도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씨티엔에스(대표자 권기정)'는 4년차 스타트업으로 '리튬이온 배터리팩 제조 전문 기업'으로 1,500만원의 개선비를 지원받아 탕비실과 휴게실 환경을 개선했다.

권기정 대표는 "빠른 성장에 맞춰 직원채용도 늘자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는데 다행히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직원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용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김은영 주임도 "훌륭한 커피 머신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가 회사에 있어 마치 카페에서 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이전보다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일수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는 특히 지원금의 5%(15만원)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여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노동의 기쁨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면서 신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경기도, 가구업체 판로 지원을 위한 2021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지원

경기도와 고양시, '2021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고양시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1 고양 가구박람회'를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가구협동조합(이사장 정세환) 및 일산가구협동조합(이사장 강철희)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고양 가구박람회'는 2011년 첫 개최 이래로 가구산업 브랜드 가치 향상과 가구업체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약 3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가구박람회를 대표하는 산업 축제로 성장했다.

130개 업체 672개 부스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가구가 바뀌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슬로건 하에 약

300여개의 브랜드 가구의 전시 및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기간 중 이벤트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체온 측정, 방역물품 지급 등을 통해 방문객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글로벌 가구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가구기업을 위해 8년째 고양가구박람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2021 고양 가구박람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